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사 44:1-8)

God who is Alpha and Omega

(Is. 44:1-8)

믿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사 44: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들을 준비가 되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와
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론아 두려워하지
말라"(사 44:2).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모
태에서 조성하신 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
나님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
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
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같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사 44:3-4).

인생의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수
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그 인생에 시냇물을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
나님이 복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
치 마른 땅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시냇가의 버들 같
이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
자인 만군의 여호와와 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
음이었으나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
느니라"(사 44:6).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
시는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
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도 실패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
지만 불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실패한 자리
에서 상처 받은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는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지에 있
습니다. 신앙인들은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가 그들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렘 32:27).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분에게는 불
가능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
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 맡겨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승리의 삶을 사
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Faith is life, power, and a miracle. It is clear that the world cannot afford to handle Christians who have a thorough faith in God and a clear hope for the eternal kingdom of heaven.

"But now listen, Jacob, my servant, Israel, whom I have chosen" (Is 44:1).

God calls our name and says, "Are you ready to listen to me?"

"This is what the LORD says-he who made you, who formed you in the womb, and who will help you: Do not be afraid, Jacob, my servant, Jeshurun, whom I have chosen (Is 44:2).

God who made and formed us from our mother's womb helps us. As God says, I also ask you: Do not be afraid; Do not worry; Do not feel uneasy. The LORD who made and formed us says that we should not be afraid.

The reason why we do not be afraid is, "For I will pour water on the thirsty land, and streams on the dry groun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your offspring, and my blessing on your descendants. They will spring up like grass in a meadow, like poplar trees by flowing streams" (Is 44:3-4).

Are you thirsty for life? God will give us the water of His spirit. Is your life dry? He will make a stream of your life flow. Are you yearning for the abundance of the spirit? He will pour out his spirit. Do you want to be blessed? He will make our life be blessed just like the willow trees spring up on the dry meadow by the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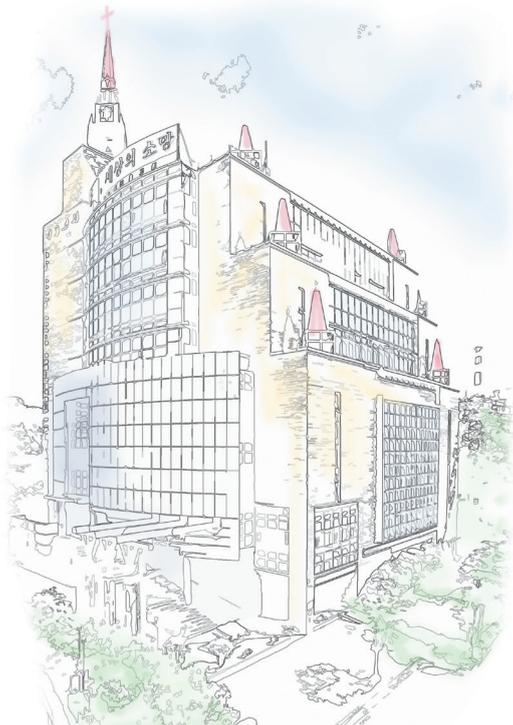
"This is what the LORD says-Israel's king and I am the last: apart from me there is no God" (Is 44:6).

God is the first and the last, the Alpha and the Omega. It is the creator, almighty God who is from eternity to eternity.

Those who receive this word with faith never give up it. Of course, they can fail and be hurt. But the difference between believer and unbeliever is whether they fall down to the place where they were hurt and remain, or they rise from there. The believers are able to rise up because their failure is not the end. God has already promised us victory.

My beloved Christians,
"I am the Lord, the God of all mankind. Is anything too hard for me?" (Jer 32:27). Do you believe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with his word? Do you believe him to whom nothing is impossible? If so, I hope we entrust our life to God. If we entrust our family, work place, children's health, and even our life to God, the almighty God will lead us with an eternal love.

Entrusting all of ours to God who is Alpha and Omega,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live our victorious lif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믿음의 여정



김영준 장로

사랑에 빛진 자 되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장로의 자력에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소명을 받고, 신실한 순종과 섬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채 어언 20여 년을 하루 같이 지내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머슴이라 생각하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고 모퉁이 돌이 되어 겸손과 순종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였지만 종으로 오신 주님처럼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덕을 택한 디모데처럼 희생하며 관용하는 마음도 부족하였습니다. 섬겼다기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성도님들

과 믿음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 부서를 돌아보면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쪼록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평강과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사랑에 빛진 자 되어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크신 사랑을 주신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역의 노하우를 잘 선용하는 서울교회 되기를...



이영기 장로

복음에 빛진 민족이요, 하나님 사랑에 빛진 자인 우리 교회가 100명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기도해왔으나, 장로 은퇴를 앞두고 다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선교사들의 비전을 온전히 채워드리지 못한 서운함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세계 각지에 파송되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더욱 기도와 필요를 채워주며, 그동안의 선교사역의 노하우를 잘 선용하는 서울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종윤 원로목사

님, 다음 세대를 품고 온몸 다 바쳐 목회하시는 박노철 담임목사님, 주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함께 달려왔던 장로, 집사, 권사, 온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 안에서 한마음 되어 서울교회 첫사랑의 열정과 믿음을 회복하여, 만세 반석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중심을 잡아가며, 끝까지 승리하는 서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더 많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부족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순종! 순종임을 굳게 마음에 새깁니다



박정선 장로

강원도 산골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은 6.25 후 몇 년이 지난 초등학교 때에 누나를 따라간 고개 넘어 작고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부 중창단을 조직하고 성탄절 전후로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곤 하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시절 인 1970년대 중반에 고향의 어머니(권사)께서는 사랑방에 제단을 쌓으시고 목사님을 모셔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사랑방에 책상 하나 놓고 성도 대여섯 명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 만에 작은 흠뻑돌집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교회가 건축된 후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중요 시설물은 늘 나에게 부탁을 하시었습니다. “셋째야, 교회 목사님 강대상이 필요하니 네가 얼른 해놓으면 좋겠다.” “교회의 종탑을 세워야 하는데 네가 얼른 해 놓으면 좋겠다.” “교회 의자가 있어야 하는데 네가 얼른 해 놓으면 좋

겠다.” 어머니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은 늘 나에게 “얼른 먼저” 해 놓으시기를 주문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때마다 흔쾌히 “네 어머니” 하며 순종하였고 집사님(김남순 권사) 또한 절대 협조적이었습니다. 논현동 시절부터 24년간 서울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미흡하기 그지없는 저를 들어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저를 통해 “얼른 먼저” 채우도록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복을 나에게 안겨주시려고 하신 크신 뜻이었음을 13년간의 장로직을 은퇴하는 오늘에야 깨닫습니다. “아! 나의 음악인생 50여 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타다 남은 부지깅이만도 못한 미천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는 자의 본은 오직 순종, 순종(신명기28:1-6)임을 굳게 마음에 새깁니다.

서울교회는 제 인생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김숙자 권사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십 대 중반에 권사 직분을 받고 선배 권사님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의 뒤를 이어 부끄럼 없는 권사가 되기를 다짐하며 봉사만이 죄 씻음의 지름길인 양 허둥대며 달려왔습니다.

반포동 성전 시절 비닐로 씌운 옥상 식당,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 텐트로 덮고 돌과 벽돌로 귀퉁이를 매달고 늦은 가을이면 성도들이 모여 김장을 하며 겨울엔 추위에 떨면서도 퐁퐁 얼어붙은 손을 난로에 녹이며 마주 보고 웃던 그때가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때마다 새벽부터 김밥을 싸며 웃음꽃을 피우시던 권사님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계십니까? 지난날의 소중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림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짙은 암흑과 같은 삶 속에서 방황하던 저를 부르시고, 불드시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나간 환난과 고통은 폭풍우가 지난 후 다시 뜨는 태양의 고마움 같았습니다. 주옥같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여 준 어머니의 품속 같은 포근함을 주는 서울교회는 제 인생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때가 아닌 지금도 쳐다보며 미소 짓고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며 위로하는 교회,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소생하는 믿음의 계대가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

독수리가 날개 치며 비상하듯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비상하는 영원한 나의 사랑 서울교회...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립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서명철 목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모이고 섬기며 전도에 동참한 전도위원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70인 전도대원들, 구제위원회의 섬김위원들, 국내외 의료사각지대로 달려가서 땀 흘려 섬기신 의료선교부원들, 사랑이 넘치는 살롬권사회와 제2권사회의 모든 권사님들, 기도에 힘쓰신 흥해작전 본부의

모든 참모들, 주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모여 찬양하며 말씀 배우기에 힘쓰신 소망부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항상 모이기를 기뻐하신 살롬경로대학의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복음화 된 통일조국을 기다리는 디아스포라부의 형제자매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순례자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석남 목사

2015년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동역 성도님들의 수고로 참으로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구를 위해 너무나 많은 큰 수고를 해주신 12교구, 13교구의 교구장 장로님들과 부교구장 집사님, 간사님들, 임원님들의 수고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85명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지의 동역자분들, 선교위원장

님을 비롯한 선교위원님들과 선교위원회 임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 그리고 30개의 기도팀에서 쉬지않고 선교를 위해 울려퍼졌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또한, 직분자양성부의 헌신적인 사랑의 수고, 멀티미디어부의 충성스런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교역자실을 사랑과 열정이 넘치게 하는 커피향으로 채워주신 『COFFEE COFFEE』와 『Le BRESSON』 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2016년에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황 광 목사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겸손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뜻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더불어 함께 주의 사역의 현장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2015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셨던 한 분 한 분을 기

역하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셨던 2,9,11,15교구 장로님을 비롯한 다락방리더와 성도님들, 교회 찾아오는 새가족들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를 다하셨던 새가족부 교사, 새가족위원회 장로님과 섬김위원들, 관리위원회 모든 장로님과 식당관리부 차량관리부 섬김위원들, 장학회 장로님과 위원들, 1권사회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새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유원건 목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2015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감사드릴 것 밖에는 없습니다. 1교구와 16교구의 교구장로님, 부교구장 집사님, 간사 집사님, 권사님, 다락방 리더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교구위원회에서 헌신하시

는 모든 분들, 세례와 개종, 입교와 유아세례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세례교육부의 귀한 선생님들, 교회의 기둥같은 일꾼이신 스테반 회원들, 그리고 서울성경대학과 열린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시고, 사랑의 수고로 힘써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놀라운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영준 목사

2015년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셨던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10교구 교구장로님과 부교구장 집사님, 그리고 간사님들, 다락방 리더들과 모든 다락방 식구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온 마음으로 섬기셨던 찬양위원회의 모든 장로님과 섬김위원들, 사랑부의 천사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 눈물로 섬기신 선생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을 위해 식당에서 봉사해 주신 권사님과 집사님, 기도하는 일에는 은퇴가 없음을 몸소 실천하며 골방에서 예배와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설교사역도교부의 장로님과 모든 섬김위원들에게 사랑과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며 성도님들과 동역의 기쁨을 함께 맛보길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 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던 조지 윌필드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원영 목사

먼저 2015년 한 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3, 8, 14교구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들, 간사님들, 그리고 다락방 리더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위원회, 비전2020, 목회자 신학세미나, 소요리문답 부서의 위원장님들 이하 임원단과 모든 섬김위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귀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는 한해였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준권 목사

올 한 해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청년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청년부 모든 선생님들과 직장일과 학업으로 인해 바쁜 가운데에도 맡은 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각 공동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락방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낸 다락방장들... 그리고 교회교육을

위해 한 해 동안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부서 교역자님들과 교육위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새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더욱 더 충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세라 목사

2015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모범을 보여 주신 귀하신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성숙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유치부와 토요 BBS를 섬겨주신 부장님과 부감님, 총무님, 선생님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어머니 힐링 스쿨과 오후 영성 케어 스쿨을 섬겨주신 장로님, 부감님, 권사님,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부터 정식 부서가 된 장년 2부의 체계를 세워주시고 섬겨주신 부감님, 선생님, 조장님,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 주일 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는 상담부 부장님, 차장님, 회원님들, 주중 상담을 통해 만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은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배경애 전도사

2015년 한 해 동안 70인 전도대 대원들의 사역 현장에서 늘 지혜 주시고 방패자가 되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도위원회 위원장 최광성장로님, 이정연권사님께 늘 사랑과 기도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70인전도대 대장님, 부대장님, 각 팀의 팀장님, 축호 총괄팀장님, 축호 부팀장님, 서기님, 회계님, 충성스러운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70인 전도대 모든 대원들께

늘 구령의 열정에 성실히 충성 봉사함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편147편11절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도다”이 말씀을 묵상해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70인 전도대 대원들의 가정, 일터, 교회사역에서 성취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규현 목사

2015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이 시점을 한 해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지만 부족했던 점도 많았고 참으로 감사드릴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먼저 예배다부가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와 사랑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담임 목사님, 서울교회 섬김위원과 모든 성도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다부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비전을 품는 예배다부가 되기를 노력하며 다음 세대의 농인 청년부가 믿음의 일꾼이

되어 주님과 예배다부의 기둥이 되어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예배 시 통역으로 봉사하는 수화 통역 봉사자와 부장님, 부감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인들을 위해 수화성경통독용 DVD를 예배소까지 완성하여 수화성경 앱으로 연결하여 전국 농인들이 어느 때나 수화성경을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016년 새해에도 서울교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 드리며 감사합니다.



천세종 목사

2015년 올해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부족하고 게을렀던 발자국들, 누군가의 마음 상처로 남은 지혜롭지 못했던 말의 흔적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낙엽들처럼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러운 마음에 십자가 뒤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감당할 힘과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가 저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

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격스럽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한 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사역의 발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값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정대은 목사

2015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청년부 임원단과 다락방장, Joy찬양팀, 샹투스찬양대, 멀티미디어팀, 예배팀, 안내팀, 새신자팀, 제자훈련3기, 금요찬양팀... 여러분 사랑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고 고난당하고,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임을 생각하며, 2016년도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은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들 현우를 보내주셔서 가정에 큰 기쁨을 주셨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에도 베풀어주시는 은혜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심진의 목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등부, 유초 등 연합2부, 꿈나무 어린이찬양예배 교역자로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서울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6월 서울교회로 부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느꼈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부 가족들 모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한 초등부 어린이들, 기도의 동역자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주일성수를 위해 토요일마다 부서실을 청소하시고 예배 준비하시던 모습, 성경암송반을 통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애쓰시던 모습, 학교앞 전도하며 복음 전함에 기뻐하시던 모습, 매주일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하시던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던 모습에 하나하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초등 연합 2부 가족들께 감사합니다! 친구같고 가족같은 모습으로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유초 등 연합 2부, 사랑합니다! 성경 읽기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4년 정식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유초등 연합 2부가 2015년에는 명실상부한 하나의 부서로 성장하게 되었음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꿈나무 어린이 찬양예배 가족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사랑이 넘치는 모습에 매주 지칠만한 시간대임에도 오히려 더 기운이 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2016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혜 전도사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저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더 절감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연약한 저와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영아부, 유아부, 어린이 수요일예배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로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의 자리를 지

키시며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살롬!



장재원 전도사

2015년 한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구석구석에 가득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서울교회에서 청년1부 다윗공동체와 새가족부 담 당교역자로서 또 한 해를 보내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이 제게는 참으로 감사한 기억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바쁜 직장일과 학업의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회와 청년부의 크고 작은 일에 열심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청년부 임원단들과 다락방장들, 새가족 스태프들, 그리고 묵묵히 옆에서 뒤에서 세심하게 챙기시고 기도해주셨던 청

년부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많은 분들의 열심과 수고가 있었기에 올 한 해 젊은이 예배와 청년 다락방 모임이 작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단단해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지난 한 해 함께하면서 주님 안에서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진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게 해주신 소중한 제 동역자들이 자 제 기쁨의 상급이라는 생각을 하며, 내년 2016년 한 해도 더욱 열심히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진광 전도사

1년 남짓 중등부 전도사로 섬기던 시간들을 돌아켜보니 부족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예배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했고, 새친구가 왔을 때에는 잃은 양을 찾은듯 기뻐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감사로 섬겨주시는 중등부 모든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길 바라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등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사역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고수은 전도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2015년 사역의 이유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서울교회를 만났습니다. 서울교회는 2015년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제목입니다. 주일이면 유년부, 유초등 연합 2부, 꿈나무 어린이 찬양예배 등 오전부터 오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 정성으로 섬기고, 온 종일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중에는 따가운 햇볕이나 빗속에서도 대치동 주변 초등학교를 방

문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들의 풍성한 마음을 함께 누렸습니다. 한 해 동안 이 모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감당하고자 모이셨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6년 새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서울교회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2015 서울교회 10대 뉴스



1. 항존직 임직식

지난 5월 17일 공동의회를 통해 선출된 세 명(차도훈, 주동재, 홍일성)의 피택장로들이 교회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인 11월22일 우리 교회 14대 장로로 임직받았다.

2. 흥해작전

6월6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올해 흥해작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17일에 걸쳐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에는 연인원 13,628명이 참석했다.



3. 사명자대회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 가졌던 열정을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한 2015 사명자대회가 10월4일부터 11월22일까지 50일 동안 진행됐다. 성도들은 릴레이 자술기도, VIP 초대 새생명축제, 특별새벽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기도와 전도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4. 사랑의 바자

2015 사랑의 바자가 9월17일, 18일 이틀간 열렸다. “이웃과 소통”을 주제로 이웃 주민, 이웃 교회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이번 바자의 수익금은 불우이웃과 탈북난민, 생명의 우물파기, 농어촌교회 및 해외선교를 돕는 데에 사용되었다.



5. 교구별 특별찬양

교구별 특별찬양이 5월31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구별 특별찬양은 원래 격년제로 실시되던 교구찬양대회를 교구목사가 섬기는 교구가 연합해 찬양예배 시간에 특별찬양을 드리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실시해 왔다.

6. 북한구원을 위한 기도회

사단법인 세이브엔케이(Save North Korea)가 주최하는 북한구원기도회가 1월5일 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2004년 시작된 이 기도회는 우리나라 교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 교회를 순회하며 열렸고 우리 교회에서 열린 기도회는 19번째 기도회다.

7. 청년부 국내전도 수련회

청년 1,2부는 작년 이어 올해도 국내 농어촌 지역 교회를 돕는 전도수련회를 다녀왔다. 의료선교팀, 이마용봉사팀과 협력한 두 개의 팀이 강원도 고성(7월13일-16일)과 경기도 광주(7월28일-31일)의 농어촌 교회 여섯 곳을 각각 방문해 어린이 사역, 의료 및 이마용 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농어촌교회를 도왔다.



8. 두 번의 비전트립

올해 두 개의 비전트립팀이 해외 선교지에 파송되었다. 2월에는 미안바 양곤(2월2일~12일)으로, 8월에는 인도 벵갈로(8월1일~8일)에 각각 12명, 30명의 팀원을 파송해 해당 지역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유치원, 공부방, 학교 건립을 도왔으며, 특히 인도에는 의료선교팀이 동행해 의료선교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9.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10월16일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열렸다.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3장 등 세 장을 외우는 이번 암송대회 본선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142명이 출전해 암송 실력을 겨뤘다.



10. 김소한 총재 운동본부와 MOU 체결

우리교회는 12월15일 김소한총재운동본부와 MOU를 체결했다. 이종운 원로목사가 상임대표로 이끌고 있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의 일환인 김소한 총재 운동본회는 헌신, 축의금, 피로연, 예단, 예물, 하객 등을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한다.



미안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승우 집사
(미안마비전트립 총무)

2016년 1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미안마 비전트립을 위해 박영준 목사님과 박권준 단장님, 그리고 16명의 팀원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출발 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모두 모여 경건회를 드리며 비전트립 교육훈련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팀, 세미나강습팀, 요리강습팀 모두 3 팀으로 구성되어 준비중이며, 총 7개 교회에서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22개 교회를 이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학교팀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책과 찬송가 및 선교용품 전달하고, 레크리에이션과 성경공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미나 강습팀은 미안마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양성을 목표로, 요리강습팀은 현지 교인들에게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요리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선교활동을 위하여 미안마 국가개관 및 비전트립의 목적, 선교지 현장과 선교 방향의 이해, 미안마 선교전략, 선교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 및 행동 등을 교육 받고 있으며 팀원들과는 서로 격려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비전트립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적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안마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미안마 구석구석 전파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 비전트립은 세 팀으로 구성되어 더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더 많은 선교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교물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단장) 박권준집사 010-9630-5381
총무) 마승우집사 010-2977-7545



2015년 장한 어머니상(다산·개근) 시상

우리교회는 국가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장한 어머니상을 시상하고 있다. 금년에도 부모가 교회 등록한지 1년 이상 된 성도로 자녀를 셋 이상 낳은 가정의 어머니(출산일: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13일)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장학금 통장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시상한다.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을 가르치며, 2015년 한 해 동안 자녀들이 교회학교 예배에 개근하도록 양육하신 어머니들도 함께 시상한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다 산** : 5교구 최정희 집사(정사라), 9교구 김지선 성도

(이준하), 16교구 최설경 집사(노진호)

· **개근자** : 135명 어머니 : 95명
강남회 구진영 권진순 김경자6 김미선5 김민아 김민아3 김복순 김선화4 김수연 김숙자 김영선5 김영현 김유정4 김윤미1 김은경10 김은연 김은정 김은정2 김의정 김지윤 김지은10 김지현2 김현주1 김홍선 김희1 김희경2 김희정6 남재은 노애리 박길자 박미숙2 박영애 박은미2 박은영 박은주 박찬미 박혜정 백송희 소윤조 손영희 손지희 송명일 송지윤 신민숙 신아령 안성희 안재희 안혜경 양미경 양세라 양연화 양현주 오선혜 오숙영 유시현 유정민1 유현진 윤정희 음혜경 이갑연 이남용 이선화6 이성혜 이수정 이양숙 이에리자 이영선 이정현 이주영8 이진영3 이진화 이진희3 이현미1 이현정 이현정1 이화용 임춘자 정기자 정윤용 정윤희 정을순 조경숙3 조성경 진주희 진현정 차애경 최경선 최성옥 최준숙 한주희 황인주 황정에 황혜진1 타교회(1인)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8일(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웨스트민스터신대원 한국중문화 송년의 밤 및 총회에서 개회예배 설교한다. 2016년1월2일(토) 사랑의 쌀 기도회, 몽골 울란바타르대학(UU)이사회 개회예배설교를 한다.

■ 득녀: 6교구 최홍훈 성도 고민정 성도
■ 개업: 13교구 곽오숙 집사, 딸기하우스 보문점(김밥, 주먹밥, 돈까스 전문점, 단체주문 배달) 성북구 보문로 109-1 1층 딸기하우스. 02-953-9339. 010-8881-4170

■ 주일식당봉사 : 안드레 선교회(12.27) 리브가 전도회(1.3)

■ 금주의 식사 제공 : 박광서 집사 백경화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2015년 70인 전도대 전도상

· 전도상 : 축호(안내팀)총14명 / 팀장:정미애 권사 성도 유영희1 집사 유혜영 권사 이유희 집사 정미애 권사 제영진 집사 조예진1 성도 하영수 장로 김영화4 집사 김정숙3 권사 박성미1 권사 신영자

2015년 주간성경공부 수료자

1 교구 : 김선자 류순인 백명자 유선희 **2 교구** : 배은희 안창휘 유근종 이상선 정복금 최형열 주정희 **3 교구** : 김수원 배재송 이경구 이순례 이혜순 임분도 이재봉 이경실 **4 교구** : 김복녀 이승민 이승희 이춘희 조애자 흥광숙 **5 교구** : 강희자 이광열 여현진 임범창 임선철 최학인 최미아 최소희 이영주 김혜연 **6 교구** : 김대웅 김희진 이춘실 임순자 이영희 황보추자 **7 교구** : 김영례 오영자 정연택 **8 교구** : 임윤자 **9 교구** : 김미자 김진숙 김찬웅 이부자 **10 교구** : 임훈규 **11 교구** : 김태욱 김재중 김정자 신정순 이경희2 이옥희 이용기 전배호 조정옥 국산옥 서명희 안인호 **12 교구** : 김인순 김형택 남정열 박명석 송성식 여옥기 이정연 정희순 최근자 **13 교구** : 김동진 김순진 남상진 남혜경 박성희 손성실 오정숙 이영림 장영순 주화인 장정옥 주동재 최금봉 정영애 차인화 홍근표 오혜경 유슬기 위현주 김영옥 김성혜 **14 교구** : 김성순 원명희 박정자 안선희 최낙준 최태욱 최축희 **15 교구** : 문남이 **16 교구** : 이규희 장양일 정복순 정정숙 (총 : 1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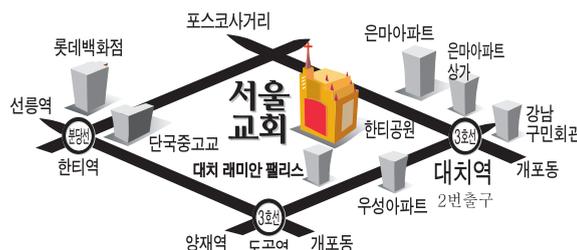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 송구영신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찬양과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할 마음으로 받도록
- 은퇴하시는 향년직분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이 심어놓은 섬김과 기도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통시용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